



벨 사령관 “분담금 안늘리면 미군 배치 재검토”

# 美 “평택이전 급할 것 없다” 공세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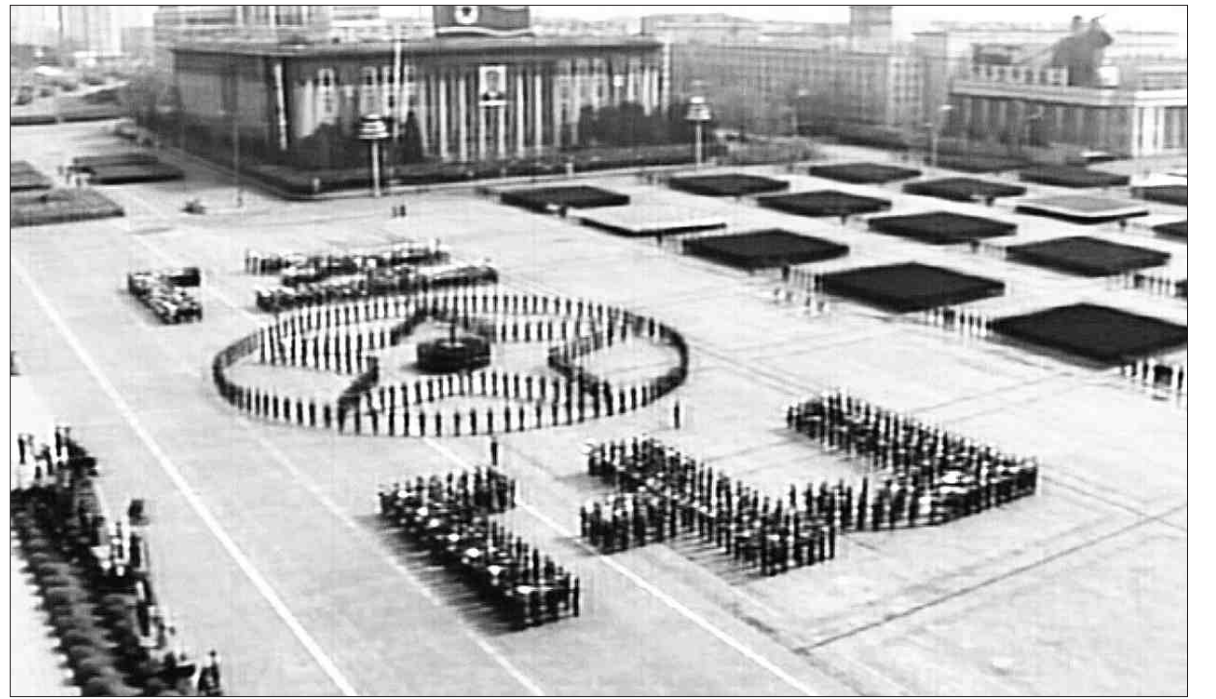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24일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으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의 재배치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한국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력히 요구, 파장이 일고 있다.

벨 사령관은 또 한반도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군장비와 완전하게 통합작전을 할 수 있는 전역미사일방어(TMD)시스템을 한국이 구입, 실천배치해야 한다고 최신헌 패트리엇 미사일인 PAC-3를 한국이 구입할 것을 주장했다.



미국에서 복무하는 주한미군 및 가족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목격할 수 없다”면서 “한국이 더 공격한 부담을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계획 재검토를 포함해 미국 정부에게 정부회계상의 조치를 건의하도록 강요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측은 그동안 한국측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늘 주장해왔지만,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의 재검토 등 ‘초감수’를 언급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北 인민군 창건일...미사일 무력시위 북한은 25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을 맞아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참석하는 대규모 군 열병식과 퍼레이드를 가졌다. 이날 열병식에는 15년만에 처음으로 48기의 미사일 부대까지 동원, 무력 시위를 벌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참석한 북한군인들이 ‘선군’이라는 글자를 새기고 있다. /조선중앙TV촬영=연합뉴스

## “패트리엇 구매하라” 압력도

벨 사령관은 이어 진행중인 6차 회담이 실패할 경우 북한이 오는 2010년까지 통상의 핵보유국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미국까지도 겨냥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벨 사령관은 이날 미 의회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문제와 관련, 작년 말 한국이 ‘특별조치협정(SMA)’

을 맺은 사실을 언급하며 “한미 양국이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며 인건비 이외의 주둔비용을 약 50대 50로 부담해야 공평한 수준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38%를 부담했고 올해 41% 정도를 부담할 예정으로, 50대 50 부담원칙에는 여전히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자금사용 제약에 압박받고 있다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나는 전투준비태세가 위협받고, 한

## 한반도 긴장 조성...외교 마찰 우려

벨 사령관은 작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전역미사일방어(TMD)시스템의 중요성을 입증했다면서 “한국은 미국장비와 완전한 통합작전이 가능한 TMD 시스템을 구입해 배치해야만 한다”며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헌 패트리엇 미사일 PAC-3 구매를 주장했다.

/워싱턴=연합뉴스

## 中 동북공정 5월말 완료...정부 지원도 중단

중국 정부가 2002년부터 진행해온 동북공정 연구를 오는 5월말로 공식 종료하고 연구비 지원도 중단하는 대신 지방 차원에서 계속 연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학계의 한 소식통은 24일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온 동북공정 연구는 2월말이 아니라 5월말에 종료된다”며 “6월부터는 중앙 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

상사지연구중심 리귀창 부주임은 지난 16일 라오닝성과 지린성의 대학과 연구기관을 방문해 자료를 앞둔 동북공정에 대한 막바지 점검작업을 벌이고 미완성 연구과제를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이런 조치는 사실상 중앙 정부가 동북공정 연구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라며 “하지만 각 지방정부 또는 대학,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계속 연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5일 칠레 소재 유럽남부천문대(ESO)가 공개한 ‘슈퍼 지구’ 행성(왼쪽)이 적색 왜성 주위를 순회하는 상상도. /로이터=연합뉴스

## 20광년 밖 ‘슈퍼지구’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미 하원이 추진 중인 일체의 군대 위안부 결의안 채택에 지지를 서명한 의원 수가 100명에 근접했다.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인유권자 센터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현재 결의안에 지지 서명을 한 의원이 90명으로 늘었다.

유권자센터측은 이번 주안에 의원

4~5명의 지지 서명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등 조만간 서명 의원 수가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사과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 결의안은 민주당 마이클 홀다(캘리포니아)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지난 1월31일 공동발의 한 이후 지지 서명 의원이 90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유럽 천문학자들이 은하하고 액체 상태의 물도 있을 것 같은 ‘지구와 가장 비슷한’ 외부행성을 발견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유럽남부천문대(ESO) 연구진은 지구에서 약 20광년 떨어진 ‘슈퍼지구’가 지금까지 외계 생명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가장 놀라운 존재라고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 저널에 실린 연구보고서에서 밝혔다.

이 행성은 지구의 5배 정도 크기로 천칭자리에 있는 흐릿한 적색왜성 ‘글리제(Gliese) 581’ 주위를 돌고 있다.

글리제 581은 이미 해양성만한 크기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구진은 이 행성을 직접 관측하지는 못했지만 컴퓨터 모델을 통해 이 행성이 바위로 이루어져 있거나 온통 바다로 덮여 있을 것이며 평균 기온은 0~40°C 정도이고 액체 상태의 물도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워싱턴-피리미터-APP=연합뉴스

## 美 하원 ‘위안부 결의안’ 지지서명 100명 육박

/뉴욕=연합뉴스

## “한국계는 우리와 공동체...참사 책임 없어”

### 케인 버지니아 주지사, 한인 대표자들 격려

탐 케인 미국 버지니아주 지사는 24일 한국계는 버지니아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으로 누구도 버지니아에 충격 참사의 책임이 교포사회에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으며, 지역 내 한국 공동체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인 주지사는 이날 버지니아주의 메이슨지구 정부센터에서 북버지니아 한인 단체장을 비롯한 교포 지도자들과 만나 이번 참사와 같은 예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문제점

을 해결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케인 주지사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계에 대한 보복 우려에 대해 그런 증거는 아직까지 전혀 없다고 전제해두고, 만일의 사태를 면밀히 주시해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결코 그런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연합뉴스

### 태 수감 탈북자 400명 한국행 요구 단식농성

태국 이민국수용소에 수감된 탈북자 400명이 조속한 한국행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고 ‘탈북난민 강제송환저지 국제캠페인’이 25일 전했다.

단체는 이날 현지 소식통을 인용, “남자 100명과 여자 300명 정도의 탈북난민이 24일(현지시간) 저녁부터 한국 정부의 입국 협조 지연 또는 거부에 항의해 단식에 들어갔다”며 “이들은 2~3개월 간 입국 수속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한국 정부가 무슨 이유에서든 비행기표를 얻어 입국을 기다리던 탈북난민까지 한국으로 데려오지 않고 앞으로 비행기표 제공도 거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탈북난민들이 항의 단식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한인 유학생 미 앨라배마서 집단구타 당해 흑시 ‘버지니아 참사’ 보복?

미국 대학 기숙사에서 한인 유학생이 집단 구타당하는 사건이 발생, 미 연방수사국(FBI)이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사건과 관련한 중요범죄인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앨라배마주 오번경찰서에 따르면 버지니아공대 참사가 일어난 지 사흘 뒤인 지난 19일 자정 직전에 오번대학교 기숙사인 ‘레인 레지던스 홀’에서 한인 남학생(18)이 4명의 남성으로부터 집단 구타당했다는 것.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한인 학생은 미국에 도착한 지 이제 불과 한 달째이며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하자 FBI는 수사 요원들을 투입, 버지니아공대 참사에 반발해 한인을 겨냥해 저지른 중요범죄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제리 홀더 오번경찰서장은 “한인 학생이 피해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치료받기를 꺼렸지만 주위에서 신고토록 설득했다”고 밝혔다.

또 에드 리처드슨 오번대 총장은 “가해자를 찾는 데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해 정상적으로 수업에 복귀토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실력있는 국제 영어교사자격 인증과정

# ALU- TESOL

학사 석사 박사

‘취업’에 불안하십니까?  
‘영어전문가’가 되어 당당한 영어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TESOL 학사/석사 학위과정을 입학하십시오.  
(총 소요기간 1년)

[www.aluniversity.com](http://www.aluniversity.com)

입학문의: 0505-616-1515 [president@southbay.ac](mailto:president@southbay.ac)

American Liberty University 캐나다 자메이카 South Bay 캠퍼스 주관, TESOL(영어교수법)의 학위과정을 진가를 느끼세요.

〈주의 요망!〉 흔히 시중에서 TESOL Certificate 과정, 수료증 과정이라는 것은 석사학위과정도 아닙니다. 국내에서 공부하고 ALU- TESOL 학위를 취득하십시오. American Liberty 대학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박사학위 등록이 되는 정규대학입니다.

## 경찰시험 합격비법 공개!

경찰시험에 합격을 좌우하는 열쇠는 ‘경찰영어’ 점수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영어! 2개월이면 말끔하게 마무리 됩니다.

# 동아경찰영어

필승 합격반 모집 중!

각 분야 막강 강사진! 경찰영어 강의만큼은 자신만만!  
먼저 입주일 들어보고 수강등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 무료강의는 아닙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경찰영어 강의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 오전 7:20~8:40 • 오후 4:40~6:10 • 오후 7:20~8:50

새로운 건물로 완전 이전 확정! - 예전의 거리 한복판 사거리 222-6253

[www.donga.tv](http://www.donga.tv)

당신도 한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우스베이 한의대

[www.southbay.co.kr](http://www.southbay.co.kr)  
0505-313-1515

## 토익990점 만점 대특강

# TOEIC강좌 퍼레이드!

토마토 해커스 실전990

동아외국어학원은 오로지 토익 만점(990점)만을 위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탄탄한 TOEIC강좌로 소문난 동아외국어에서 만점 합격의 기쁨을 누리세요

호화막강 강사진! 열강! 역강!

TESOL박사 최갑원장

토익만점 11회 조성훈 교수

토익 분석 전문가 차준오 교수

새로운 건물로 완전 이전 확정 - 예전의 거리 한복판 사거리 222-6253 [www.donga.tv](http://www.donga.tv)

# 동아외국어학원

# 두메 21세기 식문화를 재창조 하는 젊은 기업

- **외식업계 15년 노하우로 어머니의 정성과 손맛을 드립니다.**  
이·취임식, 창립기념식, 세미나, 회갑연, 피로연, 출장뷔페, 시제상, 도시락 등 기타음식행사
- **어머니 정성 그대로 담은 100% 순수 국내산 맛깔찬 김치!**  
30여종의 다양한 김치 생산으로 홍콩, 대만, 일본 등 수출 2003,2004 광주김치대축제 최우수상 수상
- **학교, 병원, 기업체, 관공서 등 위탁급식운영 및 식자재 납품**

**두메외식산업(주)** [www.dumept.co.kr](http://www.dumept.co.kr)

**두메김치(주)** [www.dumekimchi.co.kr](http://www.dumekimchi.co.kr)

**두메푸드시스템(주)** [www.dume1992.co.kr](http://www.dume1992.co.kr)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401-2 TEL.(062)571-6000 FAX(062)571-6030